

# 2008-2024 KCI 데이터로 본 한국문학·한국영문학 담론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

김가연, 박선영, 김병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인문정보학)

## 1. 연구 배경 및 목표

‘한국문학’과 ‘한국영문학’은 라캉(Lacan), 지젝(Žižek), 버틀러(Butler) 등 공통된 학자의 이론을 공유하는 동시에 제도적·문화적 분할 속에서 각기 다른 언어·제도·연구자 집단과 함께 한국의 ‘문학’ 학술 담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학제적 분류는 그들이 공통된 동시에 어떤 차별화된 담론적 교점과 접점을 갖는지 비교하며 숙고할 기회를 차단해왔다. 미케 발(Mieke Bal)이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Travelling Theory’을 개념적으로 변형한 ‘Travelling Concept’ 이론이 지적하듯, 이러한 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교류와 변형 양상을 비가시화함으로써 특정 영역 내에서 유통되는 담론의 특징과 위상을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문학’과 ‘한국영문학’이 분할을 가로질러 오랜 시간 높은 학제적 친연성을 기반으로 한국 ‘문학’의 학술장을 형성해 왔다고 가정하고 한국문학과 한국영문학, 그리고 그 ‘바깥’으로 인식되는 세계문학 사이의 지식 이동 양상과 이론적 헤게모니의 영향 관계를 시계열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지식은 추상화되고 비신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식을 사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를 필연적으로 매개하는 신체적 지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술장의 세대, 젠더 등의 요소들이 해당 지식에 어떻게 연루되고 개입하는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KCI에서 수집한 2008-2024년 학술논문 38,295편이며, 한국문학 분야 17,510편과 영어영문학 분야 20,785편으로 구성된다. 분석 방법으로는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인으로 연도별 추이, 저자의 젠더 및 세대, 그리고 두 분야의 공유 담론 및 주제를 설정하였다. 저자의 세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인용 학자 분석에서는 한국과 세계 사이의 개념적 이동 양상을 살피고자 한 연구 목표에 맞추어 분야별 참고문헌의 해외 저자만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3. 연구 결과

### 3.1. 세대별 젠더 분포

학계의 실질적인 인구 구조적 변동이 강하게 체감되는바, 한국문학과 한국영문학계의 시계열적 담론 변천사에는 이러한 변화 또한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세대별 젠더 분포를 살펴본 결과, 1970년대생을 기점으로 여성 학자의 양적 우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문학과 영어영문학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관

찰되며, 특히 1980년대생 이후 세대에서 여성 연구자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 증가와 학계 진입이 본격화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가 발생했던 2016년을 기점으로 논문의 여성 저자 비율 또한 남성 비율을 역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사회적 사건이 여성 연구자들의 학계 내 발화량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학술장 내 주요 문제의식의 양적 전환을 이끌었음을 추정케 한다.

### 3.2. 주요 토픽 추출 및 담론 지형 분석

한국문학의 KCI 논문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주제들을 자동 추출한 결과, 서사 이론 및 소설 미학(Topic 11)과 문학 교육(Topic 6)이 학술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연구자 모두에게서 전통적인 근대성 및 번역 담론(Topic 2)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여성 및 젠더 담론(Topic 9)은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를 기점으로 여성 연구자 층에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는 한국문학 연구가 텍스트의 형식적 분석과 국가적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연구 주체의 변동에 따른 미시적·윤리적 주제성 탐구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영문학 분야의 경우, 영어 교육학 및 학습자 연구(Topic 8)가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학문적 실용성을 견인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담론의 변화 양상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는 전통적 소설 연구(Topic 7)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한편, 여성 저자들이 주로 연구했던 인종, 젠더, 정체성 담론(Topic 1)의 젠더 편향성은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면서(남성 연구자들의 양적 증가, 여성 연구자들의 미약한 감소) 양적 평형을 이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인종, 젠더, 정체성 담론에 대한 여성 연구자들의 실질적 관심 감소로 이해하기보다는 해당 담론의 전방위적 확산 및 방법론적 편재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지젝(Žižek) 식의 고전적 비평 담론이 쇠퇴하고 버틀러(Butler)의 수행성 이론 및 포스트휴먼 담론이 주류로 부상한 영문학계의 흐름은, 젠더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영문학 전반의 분석 틀로 확산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두 분야를 비교했을 때, 한국문학은 서사론과 교육론의 안정적 토대 위에서 식민지 근대성 담론이 점진적으로 젠더 비평으로 치환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에 반해 한국영문학은 언어 교육이라는 거대 분과 내에서 정체성 정치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이 비평적 전위로 급부상하며 국문학 대비 상대적으로 더 빠른 이론적 교체 주기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양 분야 모두 2016년을 기점으로 젠더 및 정체성을 공통의 교점으로 삼아 담론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문학은 역사적 맥락과의 결합을, 영문학은 글로벌 비평 트렌드와의 동기화를 각기 다른 전략으로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3.3. 세대별 성별 Top 5 인용 학자 비교

세대와 젠더에 따라 인용하는 주요 해외 이론가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세대별 성별로 가장 많이 인용한 학자의 순위를 뽑아본 결과,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인용 빈도를 보이는 학자로는 Deleuze, Foucault, Žižek, Derrida, Freud, Butler 등이 있었다. 이는 프랑스 후기구조주의와 정신분석학 등이 한국의 국문학 및 영문학 연구에 미친 깊은 영향력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영문학계 대비 국문학계에서 Žižek의 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08-2024년 데이터에서 Žižek은 국문학 분야의 인용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영문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인다. Žižek은 라캉 정신분석학을 맑스주의적 문화비평과 결합한 이론가로, 이러한 분야 간 차이는 국문학계가 맑스주의적 문제의식을 정신 분석학과의 결합을 통해 지속해온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980년대생 여성 연구자들 사이에서 Butler의 인용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은 앞서 추정한 대로 2010년대 이후 페미니즘 담론의 부상과 젠더 연구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이 젊은 세대 여성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연도별 인용 Top10 학자 진입·퇴장 추이

가장 많이 인용된 해외 이론가들의 연도별 인용 Top10 학자의 진입·퇴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sup>1)</sup>, 두 분야 간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영문학 분야에서는 Žižek이 2010년대 후반 이후 퇴장하는 반면, Butler, Agamben, Braidotti 등의 인용 정도가 부상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문학 분야에서는 높은 인용 정도를 보이지 않은 Agamben이 2010년대 후반 다수 인용된 것은 이 시기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학계의 논의를 진전시킨 까닭으로 짐작된다. 반면 국문학 분야에서는 Lacan이 퇴장하는 2016년을 기점으로 Butler와 Rancière의 인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cière의 부상은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 특히 '문학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텍스트의 미학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2010년대 중후반 Butler, Braidotti, Haraway 등 페미니즘 및 포스트휴머니즘 관련 학자의 이름이 순위권에 등장했다는 점은 두 분야 모두 비슷한 시기에 담론적 전환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영문학계에서는 Žižek이, 국문학계에서는 Lacan이 퇴조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게 한다. 첫째, 한국문학계에서는 Lacan의 자리를 Žižek이 대체하는 계보적 수용이 이루어진 반면, 영문학계에서는 맑스주의적 문제의식보다 젠더·포스트휴먼 담론이 더 긴급한 이론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Žižek이 퇴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10년대 중후반 두 분야 모두 여성 연구자의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이론적 자원이 Lacan/Žižek보다 Butler/Braidotti/Haraway 쪽에 가깝다면, 세대교체가 곧 이론적 전환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 4. 결론 및 미래 연구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KCI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문학과 한국영문학 학술 담론의 시계열적 변천 양상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두 분야 모두 과거의 국가나 근대성 중심 거대 담론에서 젠더, 정체성, 타자성 중심의 미시 담론으로 연구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공통적인 추세를 보였다.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가 발생한 2016년을 기점으로 여성 저자의 비율이 남성을 역전하였으며, 이는 학술장 내 주요 문제의식이 양적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비록 두 분야가 이론적 토대를 공유하나, 국문학은 지젝(Žižek)을 매개로 한 맑스

1) 포스터에 첨부된 시각화 자료는 지속적으로 10위권에 등장하는 학자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진입 및 퇴장 학자들의 순위 변동 추이만을 시각화한 것임을 밝힌다.

주의적 문제의식을 지속한 반면 영문학은 인종과 교차성을 포함한 정체성 정치 및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더욱 빠르게 경도되는 차별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술 담론은 연구 주체의 세대 및 젠더적 변동과 긴밀히 호응하며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